

# ‘좌초 위기’ 한국 복싱 구원... 임애지 가는 길이 역사다



대한민국 복싱 대표팀 임애지가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스 파리 아레나에서 진행된 복싱 여자 54kg급 준준결승 콜롬비아의 예니 마르셀라 아리아스 카스테나다와의 경기를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화순군청 소속... 여자 54kg급 동메달 획득으로 가능성 확인 20대 중반에 간판 등극... 아마추어 복싱 붐 등 저변 확대 기대

비록 준결승 무대에서 임애지(25·화순군청)의 두 번째 올림픽은 끝났지만, 그는 좌초 위기였던 한국 복싱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 노메달에 그쳤던 한국 복싱은 임애지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확정하면서 2회 연속 노메달 신세에서 벗어났다.

임애지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노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54kg급 준결승전에서 하티세 아크바시(튀르키예)에게 2-3으로 판정패했다.

앞서 16강전과 8강전에서는 저돌적인 인파이터 복서를 상대로 간격을 벌리고 포인트를 쌓는 복싱을 펼쳤던 임애지는 4강전에서 자신과 경기 스타일이 유사한 '원손잡이 장신 아웃복서' 아크바시를 만나 고전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첫판에서 탈락했던 임애지는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어 두 번째로 경험한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 단숨에 한국 복싱 간판이 됐다.

시련의 길을 걷던 한국 복싱은 임애지의 선전에 크게 고무한 모습이다.

임애지의 메달이 다시 아마추어 복싱 붐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어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는 한국 복싱의 전성기를 다시 열어가길 기대한다.

특히 임애지는 한국 여자 복싱 경쟁력을 보여줬다.

2012 런던 대회에서 처음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치러진 여자 복싱은 3체급으로 시작했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평등 정책에 따라 2020 도쿄 대회에서 5체급으로 늘었다.

그리고 파리 대회에서는 6체급으로 늘어 남자 7체급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

복싱계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여자 체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 비해 아직 선수층은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

세계적인 복싱 강국인 미국과 쿠바마저 여자 선수 구인난에 시달릴 정도다.

남자 복싱이 강력한 중남미 국가들도 아직 여자 복싱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대신 여자 복싱은 저변이 넓은 유럽이나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한 중국과 북한 등이 강세를 보인다.

임애지의 메달 획득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우리 복싱이 4년 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대비해 여자 복싱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이번보다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 복싱이 올림픽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멀티 메달'을 수확한 건 동메달 2개를 탄 2004 아테네 대회다.

앞으로 4년 뒤 로스앤젤레스 대회에서 파리보다 좋은 성과를 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아예 올림픽 무대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남자 복싱은 체질 개선부터 필요하다.

한국 남자 복싱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아무도 본선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가 막판에 한 명이 빠지면서 함상명이 극적으로 출전했다.

이후 2020 도쿄 대회, 2024 파리 대회 2개 올림픽 연속으로 한 명도 나서지 못했다.

인구 감소 속에 안 그래도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든 격투 스포츠 유망주들은 '합치고 배고픈',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아마추어 복싱보다는 다른 종목을 선호한다.

올 초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범한 대한복싱협회 지도부는 2012 런던 대회 한순철(남자 60kg급 은메달)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탄 임애지의 쾌거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자 복싱을 살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 금 가른 '한끗'... 김우진, 양궁 싹쓸이 미션 완료

### 남자, 단체·혼성·개인전 3관왕 결승 슛오프, 불과 4.9mm 차 승리 5개 금메달 '신공의 나라' 재입증

김우진(청주시청)이 파리 올림픽 마지막 화살을 10점에 꽂으면서 한국 양궁의 새 역사를 썼다. 김우진은 4일 프랑스 파리의 앙발리드에서 진행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미국의 브레이디 엘리스를 슛오프 점전 끝에 6-5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우진의 마지막 화살로 한국은 파리 올림픽 양궁 종목에 걸려있던 5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를 내주지 않은 한국 양궁대표팀은 나폴레옹이 잠들어 있는 앙발리드에 5차례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했다.

이 메달로 김우진은 임시현(한국체대)에 이어 이번 대회 양궁 3관왕에 올랐다. 김우진은 앞서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과 남자 단체전 우승을 이뤘고, 임시현과 혼성 단체전 우승도 차지했다.

김우진은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을 더해 '그랜드 슬램'도 완성했다.

준결승전에서 슛오프 끝에 김우진에게 결승행 티켓을 내줬던 이우석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의 플로리안 운루를 6-0(29-27 29-28 29-28)로 물리치고 나란히 시상대에 섰다.

세트 스코어 4-4로 맞서면서 5세트까지 펼쳐진 승부에서 김우진이 '텐텐'을 기록했다. 엘리스도 연달아 중앙에 화살을 꽂으면서 명승부를 연출했다.

김우진의 5세트 마지막 화살도 과녁 정중앙으로 가면서 우승을 확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엘리스도 10점을 맞으면서 슛오프가 펼쳐졌다.

먼저 사대에 선 김우진이 활시위를 당겼고 10점이 기록됐다. 잠시 뒤 엘리스의 화살은 9점과 10점 경계에 꽂히면서, 승부 막판 끝에 김우진의 금메달이 확정됐다.



한국 김우진이 양궁 남자 개인전 미국의 브레이디 엘리스와의 결승전에서 활시위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대회 피날레를 금빛으로 물들인 김우진은 '그랜드 슬램'에 남아있던 '올림픽 개인전'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

김우진은 이적이 없는 한국 양궁 간판선수다. 그는 올림픽보다 더 어렵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연달아 통과하면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파리 올림픽까지 3연속 올림픽 출전을 이뤘다. 올림픽에 3차례 나온 한국 양궁 선수는 앞서 김수녕, 장우홍, 임동현 세 명만 있다.

올림픽 남자 단체전 3연패 순간에도 김우진이 있었다.

고등학생이었던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계기록으로 단체-개인전 2관왕에 오르는 등 각종 국제 대회 순위 가장 높은 곳에도 늘 김우진의 이름이 있었다.

세계가 인정하는 '신공' 김우진이지만 올림픽 개인전에서는 웃지 못했다. 2016년 리우 대회에서는 32강에서, 2021년 진행된 도쿄올림픽에서는 8강에서 금메달 도전을 멈췄다.

그리고 김우진은 '만행'으로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마침내 기다렸던 개인전 금메달을 명증시켰다.

김우진은 2020 도쿄 올림픽 안산(광주은행), 이번 대회 임시현에 이어 한국 남자 양궁 선수로는 첫 3관왕에 등극했다.

또 앞선 대회 2개의 단체전 금메달까지 더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올림픽 금메달을 보유한 선수가 됐다. 앞선 기록은 4개로 김수녕과 함께 진중오(사격)가 기록하고 있다. 동계 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의 전이경이 4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전남 패럴림픽 선수들 국내서 리허설

### 전국양궁대회, 김옥금 은3·정진영 금...조정, 김세정 금2

2024 파리 패럴림픽을 앞둔 광주전남 양궁·조정 선수들이 국내 대회를 통해 리허설을 진행했다.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김옥금·정진영(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장경숙(한전KDN)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치러진 '제4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에서 활약했다.

김옥금은 여자 W1 50m 1라운드 2위(277점), 50m 종합 2위(558점), 토너먼트 개인 2위를 기록해 은메달 3개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여자 컴파운드 정진영은 토너먼트 개인전 결승에서 133점을 획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청 안형숙 감독은 "김옥금은 패럴림픽 출전을 앞두고 장비를 교체하고 자세를 수정해 경기 성적이 저조했던 것 같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수정·보완해 패럴림픽에서 본기량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진영은 아직 국제 대회에서 경쟁력 면에서 뒤떨어지는 성적이지만 국내대회에서 조금씩 실력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해 시도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전남 소속 선수단에서는 장경숙(한전KDN)이 출전해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리커브 장경숙은 여자 70m 1라운드 2위

(246점), 70m 종합 2위(512점), 광형주(광양포스코DX)와의 혼성 리커브에서 1106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개인전 토너먼트에서 3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양일간 충주 충주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에서 치러진 전국장애인조정대회에서도 패럴림픽을 향한 담금질이 계속됐다.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김세정(광주시청 장애인 조정연맹)이 "2024 충주탄금호전국장애인조정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2개를 따냈다.

김세정은 PR1 W1x 1000m 개인전과 PR2 W1x 1000m 종목에서 각각 5분 44초51, 5분 27초 13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넘었다.

그는 "이번 대회는 훈련의 일환으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쁨을 느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훈련과정에서 얻은 성장과 경험은 큰 보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파리 대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신명나게 즐기고,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패럴림픽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와 2020 도쿄 대회에도 출전했던 김세정은 이번 파리 대회로 세 번째 패럴림픽에 도전한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지는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은 오는 28일(현지시간) 개막을 앞두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국가대표란 이런 기분이군요” 눈물 터진 김주형

### 골프, 13언더파 271타 8위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상상도 못 했어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승 경력의 김주형(22)이 2024 파리 올림픽 경기를 마친 뒤 눈물을 쏟아냈다.

김주형은 5일 프랑스 파리 인근 기양쿠르의 르골프 나쇼날(파71)에서 열린 대회 골프 남자부 4라운드까지 최종 합계 13언더파 271타를 치고 단독 8위에 올랐다.

김주형은 경기를 마친 뒤 한동안 눈물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북받친 모습이었다.

김주형은 "첫 올림픽 출전이었는데, 이렇게 감

동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메달을 못 따서 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그는 "사실 17번 홀 정도부터 (감정이) 올라왔다. 올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동반 플레이를 한 스코티 셰플러가 해준 말이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며 "셰플러가 제 생각을 잘 알고, 고생했다고 해주는 말이 고마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스터스나 US오픈 등 큰 대회 출전 경력도 있는 그는 "대회가 끝나고 이렇게 울음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자신의 감정에 신기해했다.

김주형은 "나라를 대표한다는 부담감도 컸고,

우리 남자골프가 아직 올림픽 메달이 없어서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며 "제가 메달을 따면 대한민국골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감정이 대회가 끝나고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림픽 경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자주 우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특유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시안투어 등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오래 지낸 그는 "아마추어 시절에 나라를 대표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프로가 돼서 이런 기회를 얻는 것이 너무 좋다"고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경험을 소중히 여겼다. /연합뉴스